



## 거짓 평화와 참 평화: 미가4장15절을 중심으로

차준희(한세대)

### 1. 들어가는 말

이화여자대학 기독교학과의 장윤재 교수의 다음의 진술은 간과하기 쉬운 인류 역사의 중대한 단면을 직시하게 한다.

문자기록으로 남아 있는 인류의 역사는 3,525년밖에 안 된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역사학자의 조사에 의하면, 그중 전쟁이 한 번도 없었던 해는 전체의 고작 8%인 286년밖에 안 된다고 한다. 나머지 92%인 3,239년 동안 인류는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전쟁을 벌였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인류의 역사는 전쟁으로 날이 새서 전쟁으로 날이 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니까 인류는 평화의 시기를 살다가 가끔 전쟁을 벌이는 게 아니라, 늘 전쟁의 시기를 살다가 가끔 평화의 순간을 맞이하는 것이다. 그것

[www.kci.go.kr](http://www.kci.go.kr)

이 더 사실에 가까운 정확한 역사관이다.<sup>1)</sup>

지나간 인류의 역사는 전쟁이 일상이었고 평화가 특별한 상황이었다는 불편한 진실은 현대인들을 두려움으로 몰아넣기에 충분하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21세기의 전쟁은 과거의 전쟁과는 확연히 다르다. 이 점이 오늘의 우리를 더욱 옥죄고 있다. 조용훈 교수는 다음과 같이 현대적 전쟁의 가공할만한 위험을 잘 표현하고 있다.

핵전쟁은 적의 목숨만 아니라 아군의 목숨도 위태롭게 하며, 전투요원만 아니라 민간인의 목숨을 빼앗으며, 인류의 목숨만 아니라 자연 생태계를 포함한 지구적 과멸을 가져오는 대재앙이 될 수 있다. 핵전쟁은 현재의 인류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 대해서도 끔찍한 고통을 남긴다. 핵전쟁에서는 승자 없이 모두가 패배자가 된다. 따라서 핵무기로 무장한 시대에 평화란 선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평화 외에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이다. 일찌기 예언자 이사야(미가)가 꿈꾸었던 평화의 비전이 지금 우리 시대, 우리 사회보다 더 절실한 때는 없었다.<sup>2)</sup>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길은 평화의 길 밖에 없다. 이 글은 성서적 평화의 핵심을 담아내고 있는 미가 4장 1-5절의 본문을 중심으로 성서적 살롬(평화)의 의미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둔다.<sup>3)</sup>

- 
- 1) 장원재, "세계화 시대, 성장의 종말과 그리스도교의 선교", 김경재/김창락/김진호 외, 『무례한 복음』 (서울: 산책자, 2007), 244-267, 특히 250.
  - 2) 조용훈, 『우리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열 가지 말씀: 십계명의 영성과 윤리』 (서울: 동연, 2015), 200.
  - 3) 이 주제에 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하라. W. Brueggemann, "Vine and Fig Tree: A Case Study in Imagination and Criticism," *CBQ* 43 (1981), 188-204; T. Veerkamp, "오직 그의 의만이 평화를 이룰 수 있다: 미가 4,1-15에 대한 설교 및 몇 가지 주석적 언급들", 김창락(편) 『새로운 성서해석: 무엇이 새로운가』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7), 100-118; 김이곤, "구약성서적 입장에서 본 평화", 『구약성서의 고난신학』 (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89), 303-318; W. Schottroff, "Die Friedensfeier: Das Prophetenwort von der Umwandlung von Schwertern zu Pflugscharen(Jes 2,2-5/Mi 4,1-5)," in: ders., *Gerechtigkeit lernen: Beiträge zur biblischen Sozialgeschichte* (ThB 94;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1999), 205-224; 강사문, "구약에 나타난 평화", 『구약의 하나님』 (서울: 한국성서학연구소, 1999), 282-286; 이경숙, "성서로 본 거짓 평화 유

## 2. 미가 4장 1-5절의 양식과 본문구조

미가 4장 1-5절은 구약성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가운데 하나이다.<sup>4)</sup> 이 단락은 구원의 말씀(Heilswort/word of salvation)으로서 야웨께서 이루실 평화의 세계를 묘사하고 있다(1-4절). 이어서 하나님의 평화의 약속에 대한 신앙공동체의 응답으로 끝난다(5절).

- 1) 1-4절: 평화의 약속
- 2) 5절: 신앙공동체의 응답

## 3. 미가 4장 1-5절의 본문 분석

### 1) 평화의 약속(미 4:1-4)

1절의 “끝 날에”라는 표현은 먼 미래를 상정한다. 그러나 이 말은 세상이 끝나는 종말의 날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sup>5)</sup> 만약 종말의 날을 말한다면, 이 땅에서의 평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자인하는 것이 된다. 여기서 말하는 “끝 날에”는 현재 세계와 질적으로 구분되는 질적으로 새로운 시대를 말한다.<sup>6)</sup> 그

---

형 연구, 『구약성서의 하나님, 역사, 여성』(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96-110; 박준서, “살롬의 현대적 의미”, 『구약세계의 이해』(서울: 한들출판사, 2001), 381-392; 박신배, 『평화학』(서울: 프리미스 키퍼스, 2011); 최순진, “전쟁과 평화: ‘보습을 쳐서 칼을’ 아니면 ‘칼을 쳐서 보습을’: 이사야 2:1-5, 미가 4:1-5, 요엘 3:1-10의 성경적 해석”, 『제95차 한국구약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2014년 4월 25일, 대전신학대학교), 227-246; 홍성혁, “메시아 예언 본문들에 나타난 ‘살롬’(평화)”, 『구약논단』 55집(2015년 3월), 121-152; 김래용, “미가서에 나타난 미쉬파트와 웨에리트”, 『구약논단』 57집(2015년 9월), 10-37; 왕대일, “보습을 쳐서 칼을, 낫을 쳐서 창을(을 3:10a[H 4:10a]): 칼을 쳐서 보습을, 창을 쳐서 낫을(사 2:4a; 미 4:3a)에 대한 요엘서의 도전, 그 해석학적 진다”, 『구약논단』 62집(2016년 12월), 14-43 등등.

- 4) 랄프 스미드, 『미가-말라기』 채천석/채훈 역 (WBC 성경주석; 서울: 솔로몬, 2001), 65.
- 5) F. Crüsemann, “>>Das Werk der Gerechtigkeit wird Friede sein<<(Jes 32,17): Aktuelle Überlegungen zur christlichen Friedensethik,” *Maßstab: Tora-Israels Weisung für christliche Ethik*, (Gütersloh: Chr. Kaiser/Gütersloher Verlagshaus, 2004), 126-146, 특히 134.
- 6) R. Kessler, *Micha* (Herders Theologischer Kommentar zum Alten Testament; Freiburg/Basel/Wien: Herder, 1999), 183.

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평화를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 땅에서 실현될 것이다. 우리가 그 때를 알지 못할 뿐이다.

여기서 시온은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로 소개된다. 시온은 이 지역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묘사된다. 그러나 실제 시온은 이곳에서 가장 높은 곳은 아니다.<sup>7)</sup> 이 구절에서의 시온은 앞선 구절인 미가 3장 12절의 시온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묘사된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산은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미 3:12)

미가 3장 12절에서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된다.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된다. 시온과 예루살렘은 심판을 받는다. 그러나 미가 4장 1절에서 시온은 “여호와와의 전의 산”으로 언급되며,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몰려드는 곳이 된다. 여기서 시온은 회복되고 구원을 받는다. 미가 3장 12절에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인 우두머리들과 제사장과 예언자가 저지른 범죄로 인하여 시온과 예루살렘은 심판을 받아 초토화된다. 그러나 미가 4장 1절에서 시온과 예루살렘은 다시 회복된다. 따라서 미가 3장에서 심판은 아주 없애 버리고 제거해버리는 멸절이 아니라, 더 나은 세상, 변화된 세상,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세상의 건설에 있음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모든 심판의 의도는 제거가 아니라 회복이다.<sup>8)</sup>

이어지는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에서 “몰려가다”〈나하르〉는 물이 흐르는 것을 묘사한다. 이방민족들은 마치 범람하는 강물이 밀려오듯 예루

7) J. D. Nogalski, *The Book of the Twelve: Micah-Malachi* (Smyth & Helwys Bible Commentary; Macon, Georgia: Smyth & Helwys Publishing, 2011), 556.

8) 김근주, 『소예언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2: 요나/미가/나훔/하박국』 (서울: 성서유니온, 2007), 251.

살렘으로 밀려오고 있다.<sup>9)</sup>

2절에 의하면, 이방민족들이 야웨의 산인 시온에 몰려든다. 이러한 행렬은 이방민족이 예루살렘에 조공을 바치는 모습이 아니다. 여기서 “야웨의 산에 올라가서”에서 “오르다”〈알라〉는 순례를 가리키는 전문용어이다.<sup>10)</sup> 이방민족들은 하나님의 도성에 오른다. 이방민족들의 순례의 목적은 야웨 하나님이 가르치는 인생의 바른 길을 배우기 위함이다. 이러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운다. 여기서도 “토라의 복음”(은혜, 구원)이 “행동을 통한 성화”(聖化)보다 우선임이 밝혀진다.<sup>11)</sup> 하나님의 가르침이 먼저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해야 우리는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는 법이다. 은혜가 먼저다.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2절)

이 단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바로 이 3절이다. “칼을 쳐서 보습으로”라는 구절은 평화의 방법을 알려준다. “심판하다”〈샤파트〉는 징벌의 의미 보다는 본래 서로 다투는 집단에 의하여 깨져버린 질서의 회복을 의미한다.<sup>12)</sup> 모든 분쟁과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샤파트)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체테크)로 세계를 심판하시며(샤파트)  
그의 진실하심(에무나)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샤파트)(시 96:13)

9) 송병현, 『호세아/미가: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두란노 HOW 주석;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09), 231.

10) Kessler, 윗글, 184.

11) Kessler, 윗글, 184-185.

12) J. Jeremias, *Die Propheten Joel, Obadja, Jona, Micha* (Das Alte Testament Deutsch: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7), 173-174.

하나님의 심판, 즉 하나님의 다스리심(통치)이 이 땅의 평화를 위한 기초가 된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민족들”(이방민족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신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 구절은 이방민족들을 제거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들을 야웨 신앙인으로 개종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 이 구절은 이방민족들과의 갈등을 평화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sup>13)</sup> 하나님은 국가 간의 전쟁과 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궁극적인 중재자이시며 재판관이시다.<sup>14)</sup>

갈등이 평화적으로 조정되고 나서야 비로소 군비축소가 가능해진다. 그래야 전쟁무기를 녹여서 평화의 농기구로 만들게 된다. 더는 전쟁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3절)

여기서 언급된 “칼을 쳐서 보습으로”는 아주 유명한 표어가 되었다. 미국의 유명한 팝송 가수였던 마이클 잭슨(Michael Jackson)이 1991년에 작곡한 노래 “세상을 치료하라”(Heal the World)에서 “열방들이여 그대들의 칼을 농기구로 만들라”(See the nations turn their swords into plowshares)라는 가사가 나온다. 1993년 미국의 빌 클린턴(Bill Clinton) 대통령이 무기 공장을 방문했을 때 이렇게 연설했다. “세계 최고의 무기 생산자는 세계 최고의 농기구 생산자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될 것이다.”<sup>15)</sup>

그런데 여기서 알려주는 “평화 이후의 군비축소”라는 순서가 중요하다. 군

---

13) Kessler, 윗글, 185.

14) Nogalski, 윗글, 557.

15) Kessler, 윗글, 189.

축을 통한 평화가 아니다. 평화를 통한 군축이다. 군축한다고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다. 평화가 와야 군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평화는 무력으로 만들 수 없다. 평화는 정의와 타협의 조정이 없이는 불가능하다.<sup>16)</sup> 이 땅에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힘이 들더라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적들과의 끊임없는 대화가 필수적이다. 그래서 평화는 무한한 인내를 요구한다.

유리한 대화의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힘을 키우고 군사력을 증진시키는 것은 결국 갈등만 고조시킬 뿐이다. 갈등의 고조는 자칫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대의 전쟁은 당사자들 모두를 파멸로 이끄는 악마적인 만행이다. 전쟁이 일어나면 모두 자멸한다.

평화는 무기에서 오지 않는다. 평화는 결코 내가 가진 힘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평화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온 땅을 다스리시는 야웨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율법과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데서 비롯된다.<sup>17)</sup>

4절은 하나님의 평화를 공개한다. 여기서 “각 사람”은 평화를 누리는 이 땅의 모든 백성과 유다의 백성 모두를 포괄한다. 따라서 “각 사람”은 모든 개개인을 말한다. 평화의 세상에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생존에 위협도 없고 불편을 격지도 않는다. 모두가 각자의 포도나무 아래와 각자의 무화과나무 아래서 평안을 누린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당시 고가의 과실이었다.<sup>18)</sup> 따라서 모두가 번영과 안녕을 누린다.<sup>19)</sup> 이 표현은 전형적인 평화의 상태를 드러낸다. 또한 “두려워 할 자가 없으리니”라는 표현도 일상에서 경험하는 평화로운 생활 전경을 가리킨다.<sup>20)</sup>

---

16) kessler, 윗글, 186.

17) 김근주, 윗글, 258.

18) H. W. Wolff, *Dodekapropheten 4: Micha* (Biblischer Kommentar Altes Testament: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82), 94.

19) Jeremias, 윗글, 174.

20) R. Oberforcher, *Das Buch Micha* (Neuer Stuttgarter Kommentar Altes Testament: Stuttgart: Verlag Katholisches Bibelwerk, 1995), 98.

5)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라 6)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레 26:5-6).

“자기 포도나무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다”는 표현은 구약성서에서 평화로운 상황을 묘사한다. 그런데 이 표현을 담고 있는 세 구절(왕상 4:25; 왕하 18:31; 숙 3:10)은 오늘의 본문인 미가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평화와는 구별된다.

미가 4장 4절은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고 끝낸다. 미가가 본 참 평화에 대한 비전은 야웨 하나님이 직접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점을 강조한다.<sup>21)</sup> 미가가 본 평화는 하나님의 평화이다.

## 2) 신앙공동체의 응답(미 4:5)

5절은 예배공동체의 응답으로 보인다.<sup>22)</sup> 이 구절은 야웨 하나님과 그의 약속에 대한 신앙공동체의 고백을 표현하고 있다. 만민은 각각 자신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고 행한다. 그러나 유다 백성은 하나님 야웨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한다<할라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평화 약속을 신뢰한다. 신앙공동체는 ‘전쟁 없는 세상’은 허황된 꿈이라는 조롱에 맞선다. 전쟁 없는 세상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다. 신앙공동체는 이를 굳게 믿는다. 그리고 전쟁 없는 세상을 내 주변부터 만들어 간다. 신앙공동체는 이러한 약속을 예배를 통하여 재차 확인하고 약속의 성취를 확신한다.

이 고백에 따르면, 하나님의 평화는 열방을 모두 품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

21) Oberforcher, 윗글, 98.

22) A. 바이저/K. 엘리거, 『소예언서』(국제성서주석;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5), 112.



은 이방 민족들을 위한 구원의 말씀이 현실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명은 이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소명에서 알려진 바 있다. 아브라함의 소명은 열방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다.<sup>23)</sup>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창 12:3)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창 18:18).

열방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가 사는 곳에서 그리고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끊임없이 애쓰는 것이다. ‘평화의 도구’가 되는 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길이다.

#### 4. 미가서 이외의 평화

위에서 보았듯이 미가 4장 4절의 “자기 포도나무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다”는 표현은 구약성서에서 평화로운 상황을 진술한다. 이러한 표현은 그밖에 열왕기상 4장 25절(솔로몬의 평화), 열왕기하 18장 31절(아시리아의 평화), 그리고 스가랴 3장 10절(이스라엘의 평화)에서도 등장한다. 이 표현으로 그려진 평화에 대한 세 가지 본문들은 미가서의 평화 개념과 구별된다.<sup>24)</sup> 먼저 미가서 이외의 세 본문에서 나타난 평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23) Oberforcher, 윗글, 99.

24) 특히 열왕기상 5장 5절의 솔로몬의 평화와 미가 4장 4절의 평화를 분석한 Crüsemann은 이 두 본문에 나타난 평화의 중요한 차이를 놓치고 있다(F. Crüsemann, 윗글, 135).

## 1) 솔로몬의 평화(왕상 4:25): 세금, 조공, 군대의 힘에 기초

먼저 솔로몬 시대의 평화에 대하여 알아보자. 솔로몬의 평화는 열왕기 4장에서 발견된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왕상 4:25)

“솔로몬의 평화”(Pax Salomonica)는 이방에 대한 정복, 탈취, 압제에 근거한 평화이다.<sup>25)</sup> 열왕기상 4장은 솔로몬이 거느린 신하와 그의 부귀영화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열왕기상 4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솔로몬 통치의 문제가 숨어있다. 열왕기 저자는 솔로몬의 평화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26)</sup>

첫째, 솔로몬의 평화는 남 유다를 제외한 북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세금에 근거하고 있다.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열두 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일 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왕상 4:7)

솔로몬은 예루살렘 출신이다. 예루살렘이라는 고성(古城)은 본래 남 유다와 북 이스라엘과 무관한 경계지역에 위치해 있었다. 다윗은 남 유다의 왕이 된 이후(삼하 2:1-7), 또 다시 북 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되고 나자(삼하 5:1-5), 남 유다와 북 이스라엘을 합리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두 나라에 속하지 않았던 지역인 예루살렘을 가나안의 여부스 족속에게서 빼앗았다(삼하 5:6-10).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덕분에 북 이스라엘까지 포함하여 유다와 이스라엘을 모

25) Kessler, 윗글, 186.

26) 민영진, “거짓 예언과 거짓 평화”, 『평화 통일 희년』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5), 27-40, 특히 35-37.

두 통치할 수 있었다. 아버지 다윗은 북 이스라엘 사람들을 소외시키지 않고 그들과의 계약에 충실히 수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윗은 본래 북 이스라엘의 '계약직 왕'이었다(삼하 5:3).<sup>27)</sup>

그러나 아들 솔로몬은 달랐다. 솔로몬은 분명히 지혜의 왕이었지만 그의 통치는 지혜롭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지킬 박사와 하이든”<sup>28)</sup>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을 정도이다.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다. 솔로몬은 자신과 왕실을 위한 양식을 위하여 출신 지역인 유다와 예루살렘을 제외하고 북 이스라엘 사람들을 열둘로 나누어 억지로 분담 지켜서 세금의 의무를 부과했다(왕상 4:7, 20). 자신의 왕정을 위한 국고를 공평하지 못한 세금으로 충당한 것이다.

둘째, 솔로몬의 평화는 이방국가의 조공에 기초하고 있다.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므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왕상 4:21)

솔로몬의 왕국은 이방국가를 억압하고 그들에게서 탈취한 조공으로 유지되는 나라였다. 현재의 본문은 유다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긍정적인 면으로 보인다. 그러나 모든 사건에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공존하듯이, 솔로몬의 이방 나라 통치에도 그늘이 있었다. 솔로몬 통치의 어두운 면은 솔로몬의 일용한 양식에 대한 보고에서도 은근히 폭로된다.

22)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삼십 고르요 굵은 밀가루가 육십 고르요 23) 살진 소가 열 마리요 초장의 소가 스무 마리요 양이 백 마리며 그 외에 수

27) “다윗은 이제 이중적인 왕직을 갖게 되었다. 그는 남쪽 지파들의 기쁨부음을 받은 왕이면서, 동시에 북쪽 지파들의 계약직 왕이 된 것이다.” 헤르만 민케, 『한권으로 마스터하는 구약 성서』 (차준희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271.

28) 브루스 C. 버치/윌터 브루그만/테렌스 E. 프레타임/데이비드 L. 페터슨, 『신학의 렌즈로 본 구약개관』 차준희 역 (한국구약학연구소 총서;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6), 364.

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다(왕상 4:22-23)

물론 이 엄청난 음식은 솔로몬 개인이 다 소비하는 것은 아니다. 솔로몬에게 속한 궁중의 사람들이 하루 소비하는 것이다. 아무튼 솔로몬의 평화는 이방나라에 대한 정복과 그들로부터 빼앗은 조공 위에 세워진 것이다.

셋째, 솔로몬의 평화는 군대의 힘에 의존한다.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사만이요 마병이 만 이천 명이며(왕상 4:26)

솔로몬이 이끄는 병거의 말을 돌보는 외양간만 사만에 달하였고, 이를 다루는 군사인 마병이 만 이천 명이나 대기하고 있었다. 실로 엄청난 군사력을 확보하고 있었다. 솔로몬의 평화는 무력에 근거한 평화였다.

이러한 솔로몬의 평화는 과중한 세금과 억압에 의한 조공 그리고 군사력에 의존하고 있다. 솔로몬의 평화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평화가 아니다. 이것은 거짓 평화이다. 자신의 희생이 생략되고 타인의 희생 위에 세워진 평화는 거짓 평화이다.

## 2) 아시리아의 평화(왕하 18:31): 상대의 굴복에 기초

이제 아시리아의 평화에 대하여 알아보자. 아시리아의 평화는 열왕기하 18장에 담겨 있다.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잇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왕하 18:31)

“아시리아의 평화”(Pax Assyrica)는 아시리아의 대왕에 대한 유다의 굴복에 근거한 평화이다. 열왕기하 18장은 아시리아의 왕 산헤립이 유다 왕 히스기야

를 치려고 일으킨 전쟁을 기록하고 있다. 히스기야는 당시 대제국인 아시리아에 예속된 위성 국가였다. 히스기야는 아시리아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서 종주국 아시리아에 바치던 조공을 중단했다. 아시리아는 응징의 차원에서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한다. 이때 유다국가는 46개의 성읍을 상실했고, 수도 예루살렘만 남은 위기의 상태였다. 예루살렘은 아시리아 대군에 의하여 포위된 위기의 상황에 몰리게 되었다. 이러한 상태는 이사야서에 잘 담겨 있다.

7)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8)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 같이,

참외밭의 원두막 같이,

에워싸인 성읍 같이 겨우 남았도다

9)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 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사 1:7-9)

이때 산헤립의 신하 랍사게가 예루살렘 성안에 갇힌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한 말이 열왕기하 18장 31절이다. 예루살렘 백성들은 “각기 자신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는 평화”를 보장한다는 회유의 발언이었다. 이때 언급된 아시리아의 평화는 유다의 정치적 굴복 위에 보장된 평화였다. 이러한 아시리아의 평화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가 아니다. 한쪽의 일방적인 굴복이나 굴욕에서 비롯된 평화는 참 평화가 아니다. 거짓 평화이다.

### 3) 이스라엘의 평화(속 3:10): 이기적 평화 혹은 제한적 평화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평화는 어떠한가. 이스라엘의 평화는 스가랴의 예언

www.kci.go.kr

에서 발견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슥 3:10)

이 본문은 스가라가 환상으로 본 내용이다. 야웨 하나님은 바빌론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에게 약속하신다. 유다 백성 각자는 본토에서 자신의 포도 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풍성한 양식을 취하며 평화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임을 이 본문은 보여준다. 그러나 이 평화도 유다 백성만 누리는 평화로 제한된다. 여기서 스가라의 관심은 자국의 경계를 넘지 못한다. 그러나 특정 민족이나 집단만 누리는 평화는 이기적인 평화이거나 제한적인 평화이지 온전한 평화는 아직 아니다.

## 5. 미가서의 평화(미 4:4): 조정과 타협의 결과, 모든 민족의 평화

### 1) 조정과 타협의 결과

미가의 평화는 무력과 협박이 아닌 조정과 타협에 의한 결과이다. 미가가 본 하나님의 평화에서 말하는 안정된 삶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굴복에 의한 결과가 아니다. 이방 나라들과의 평화스러운 조정과 타협에 기반 한 것이다.<sup>29)</sup> 2절에 따르면, 많은 이방 사람들은 야웨의 율법과 말씀을 통하여 인생의 이정표를 배우려고 시온으로 몰려든다. 3절에서 하나님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판결하여 조정하고 본래의 관계로 회복시키신다. 그리고 나서 인류는 전쟁의 무기를 평화의 농기구로 만들고 전쟁을 포기한다. 4절의 “각 사람”은 유다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 모두를 가리키는 말이다. 미가는 상대국가의 굴복을 말하

---

29) Kessler, 윗글, 186.

지 않는다. 이점에서 미가는 ‘솔로몬의 평화’나 ‘아시리아의 평화’와 다른 평화를 말한다. 하나님의 평화는 상대를 무력화시킴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진정한 평화인 하나님의 평화는 상호 조정과 타협으로 서로 윈윈(win-win) 하면서 만들어진다.

## 2) 모든 민족의 평화

미가의 평화는 일부가 아닌 모든 민족이 누리는 평화이다. 미가가 말하는 하나님의 평화는 한 민족으로만 국한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평화는 모든 민족이 누린다.<sup>30)</sup> 이점에서 미가는 스가랴가 본 이스라엘만의 평화를 넘어선다. 하나님의 평화는 온 인류를 포함한다.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누리는 평화만이 참 평화요 하나님의 평화이다. 모두가 평화의 수혜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평화가 하나님의 평화이다.

## 6. 나가는 말

하나님의 백성의 새 언약공동체인 교회는 복음전도뿐만 아니라 세상의 평화를 이루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적어도 오늘의 본문에서는 열방의 민족들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토라와 말씀, 즉 복음의 말씀은 군비축소와 평화를 위한 행동과 연결된다.<sup>31)</sup> 달리 말하면, 복음의 의도는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성취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미가는 예배 공동체의 청중에게 평화를 이루는 행동들에 같이 참여하도록 촉구한다.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할라크>(미 4:5)

30) Kessler, 윌클, 186.

31) 제임스 림버그, 『호세아-미가』 강성열 역 (현대성서주석;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4), 287.

이사야 2장 2-5절의 본문은 미가 4장 1-5절과 아주 유사하다.<sup>32)</sup> 이사야 2장 2-5절도 평화의 약속이 성취되는 일에 행동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촉구하며 끝낸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할라크>(사 2:5)

미가와 이사야는 평화와 국제적인 무기축소를 향한 일에 말과 행동으로 모두 참여하기를 촉구한다. 성서는 이 땅에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드는 하나님의 평화가 성취되도록 신앙인들이 정치적인 결정과정에도 관심을 갖고 참여하며, 동시에 반 평화적인 기존의 질서를 개혁하고 하나님의 평화가 꿈꾸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일에 앞장서기를 명령한다.

상대를 억압하고 억울하게 하고 이루어지는 '솔로몬의 평화'는 거짓 평화이다.

상대를 굴복시키고 이루어지는 '아시리아의 평화'도 거짓 평화이다.

자신만 누리는 이기적인 '이스라엘의 평화'도 온전한 평화는 아니다.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먹거리를 걱정하지 않는 삶이 참 평화요 하나님의 평화이다.<sup>33)</sup>

남들을 두려워 할 필요가 없는 삶이 참 평화요 하나님의 평화이다.

모두가 함께 누리는 삶이 참 평화요 하나님의 평화이다.

32) 이사야 2장 2-5절과 미가 4장 1-5절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R. W. Byargeon, "The Relationship of Micah 4:1-3 and Isaiah 2:2-4: Implications for Understanding the Prophetic Message," *Southwestern Journal of Theology* 46, no. 1 (2003), 6-26.

33) "다른 존재는 다 죽어도 혼자서만 죽지 않는 것, 더 나아가 다른 존재를 희생시키고라도 자기 자신의 실존만을 극대화하는 것을 우리는 무어라 부르는가? 그것이 '암세포'이다. 그런 불평등과 불의와 반평화적 현실은 전쟁과 죽음과 파괴를 가져온다. 하지만 한자에서 암(癌)의 반대는 평화(平和)이다. 평화는 평(공평한 저울)에 초(벼, 쌀) 그리고 口(입)가 합친 말이다. 우리의 입에 공평하게 밥이 들어갈 때 평화가 온다는 뜻이다. 이것이 경제적 정의에 기초한 평화(justpeace), 즉 살림의 평화이다."(장윤재, *빛글*, 262-263).



따라서 성서가 말하는 살롬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만을 말하지 않는다. 성서적 살롬의 의미는 전쟁이 없는 상태는 물론이고 그보다 훨씬 더 깊고 적극적이다. 전쟁이 없는 평시라 하더라도 전쟁과 갈등의 불씨가 되는 사회적 불의와 억압이 남아 있다면, 그것은 성서적 살롬은 아니다.<sup>34)</sup> 성서적 살롬은 정의의 기초 위에 세워진다. 또한 공동체 전체의 온전함을 지향한다.<sup>35)</sup>

예수시대에 세상을 지배하던 로마는 군사력으로 다른 민족과 다른 국가를 정복하고 나서 평화가 왔다고 선언했다. 그들은 그것을 ‘팍스 로마나’(Pax Romana) 즉 ‘로마의 평화’라고 불렀다. 그러나 이것도 성서적 살롬은 아니다. 100여년 전 조선을 강점한 일본은 무력으로 모든 저항을 진압하고 평화가 왔다고 선전했다. 그들은 그것을 ‘팍스 자포니카’(Pax Japonica), 즉 ‘일본의 평화’라고 선포했다. 그러나 이것도 성서적 살롬은 아니다. 힘으로 상대를 억압하고 반대자의 입을 틀어막고 강제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성서가 말하는 평화(살롬)는 아니다. 우리는 이런 평화를 ‘죽은 숲 속의 평화’라고 한다. 이는 거짓 평화이다. 아니 평화를 가장한 불의이다.<sup>36)</sup>

미가 4장 1-5절이 말하는 성서적 살롬은 1) 상호 대화를 통한 조정과 타협의 산물이며, 2) 전쟁 없는 세상, 또한 3) 먹거리를 걱정하지 않는 경제 정의와 4) 약자가 강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회 정의 그리고 5) 모두가 함께 누리는 공동체 정의를 말한다.

---

34) 장윤재, 윗글, 251-252.

35) 장윤재가 주장한 성서적 살롬에 대한 다음의 정의는 놀랍게도 우리의 분석과 맥을 같이 한다. “살롬은 첫째, ‘사회적 정의를 강조한다. 정의의 바탕 위에 세워진 평화’(peace based on justice)가 살롬이다. 그래서 요즘 영어권에서는 정의를 뜻하는 justice와 평화를 뜻하는 peace를 한 단어로 합쳐 ‘justpeace’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한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특별히 돌보는 아훼 하나님은 정의에 기초한 평화를 강조하신다. 둘째로 살롬은 사회 전체의 ‘온전성’(integrity)을 강조한다. 모두가 행복한 평화가 살롬이라는 말이다. 살롬의 반대말은 ‘깨다’인데, 그 뜻은 무엇이 ‘깨지다’, ‘쪼개지다’, ‘상하다’이다. 만약 사회 구성원의 단 한 명이라도 불의와 억압과 고통으로 깨지거나 쪼개지거나 상하면, 설사 나머지 구성원이 행복하더라도 “성서는 그것을 결코 살롬이라 부르지 않는다.” 장윤재, 윗글, 252.

36) 장윤재, 261.

## 7. 참고문헌

- 강사문. “구약에 나타난 평화”, 『구약의 하나님』 (서울: 한국성서학연구소, 1999), 282-286.
- 김근주. 『소예언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2: 요나/미가/나훔/하박국』 (서울: 성서유니온, 2007).
- 김래용. “미가서에 나타난 미쉬파트와 쉘에리트”, 『구약논단』 57집(2015년 9월), 10-37.
- 김이근. “구약성서적 입장에서 본 평화”, 『구약성서의 고난신학』 (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89), 303-318.
- . “요나서의 평화신학”, 『구약성서의 고난신학』 (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89), 319-340.
- . “거룩한 전쟁신앙에 나타난 평화사상: 출애 14,10-14와 시편 44,1-8[2-9]을 중심으로”, 『구약성서의 고난신학』 (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89), 341-358.
- 림버그, 제임스. 『호세아-미가』 강성열 역 (현대성서주석;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4).
- 만케, 헤르만. 『한권으로 마스터하는 구약 성서』 (차준희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 민영진. “거짓 예언과 거짓 평화”, 『평화 통일 회년』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5), 27-40.
- 바이저, A./엘리저, K. 『소예언서』 (국제성서주석;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5).
- 박신배. 『평화학』 (서울: 프리미스키퍼스, 2011).
- 박준서. “살롬의 현대적 의미”, 『구약세계의 이해』 (서울: 한들출판사, 2001), 381-392.
- 버치, 브루스 C./브루그만, 월터/프레타임, 테렌스 E./페터슨, 데이비드 L.

- 『신학의 렌즈로 본 구약개관』 차준희 역 (한국구약학연구소 총서;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6).
- 송병현. 『호세아/미가: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두란노 HOW 주석;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09).
- 스미드, 랄프. 『미가 말라기』 채천석/채훈 역 (WBC 성경주석; 서울: 솔로몬, 2001).
- 왕대일. “보습을 쳐서 칼을, 낫을 쳐서 창을(을 3:10a[H 4:10a]): 칼을 쳐서 보습을, 창을 쳐서 낫을(사 2:4a; 미 4:3a)에 대한 요엘서의 도전, 그 해석학적 진다,” 『구약논단』 62집(2016년 12월), 14-43.
- 요더, 페리 B./스와틀리, 윌리어드 M. 『평화의 의미: 성경연구』 신상길/소기천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3).
- 이경숙. “성서로 본 거짓 평화 유형 연구,” 『구약성서의 하나님, 역사, 여성』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96-110.
- 장윤재. “세계화 시대, 성장의 종말과 그리스도교의 선교,” in: 김경재/김창락/김진호 외, 『무례한 복음』 (서울: 산책자, 2007), 244-267.
- 조용훈. 『우리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열 가지 말씀: 십계명의 영성과 윤리』 (서울: 동연, 2015).
- 최순진. “전쟁과 평화: ‘보습을 쳐서 칼을’ 아니면 ‘칼을 쳐서 보습을’: 이사야 2:1-5, 미가 4:1-5, 요엘 3:1-10의 성경적 해석,” 『제95차 한국구약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2014년 4월 25일, 대전신학대학교), 227-246.
- 홍성현. “메시아 예언 본문들에 나타난 ‘샬롬’(평화),” 『구약논단』 55집(2015년 3월), 121-152.
- Brueggemann, W. “‘Vine and Fig Tree’: A Case Study in Imagination and Criticism,” *CBQ* 43 (1981), 188-204.
- Jeremias, J. *Die Propheten Joel, Obadja, Jona, Micha* (Das Alte Testament Deutsch;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7).

- Kessler, R. *Micha* (Herders Theologischer Kommentar zum Alten Testament; Freiburg/Basel/Wien: Herder, 1999).
- Nogalski, J. D. *The Book of the Twelve: Micah-Malachi* (Smyth & Helwys Bible Commentary; Macon, Georgia: Smyth & Helwys Publishing, 2011).
- Oberforcher, R. *Das Buch Micha* (Neuer Stuttgarter Kommentar Altes Testament; Stuttgart: Verlag Katholisches Bibelwerk, 1995).
- Schottroff, W. “Die Friedensfeier: Das Prophetenwort von der Umwandlung von Schwertern zu Pflugscharen (Jes 2,2-5/Mi 4,1-5),” in: ders., *Gerechtigkeit lernen: Beiträge zur biblischen Sozialgeschichte* (ThB 94;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1999), 205-224.
- Veerkamp, T. “오직 그의 의만이 평화를 이룰 수 있다: 미가 4,1-15에 대한 설교 및 몇 가지 주석적 언급들,” 김창락(편) 『새로운 성서해석: 무엇이 새로운가』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7), 100-118.
- Wolff, H. W. *Dodekapropheten 4: Micha* (Biblicher Kommentar Altes Testament;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82).

검색어

거짓 평화와 참 평화

솔로몬의 평화

아시리아의 평화

이스라엘의 평화

미가의 평화

로마의 평화

일본의 평화

## False Peace and True Peace: Focused on Micah 4:1-5

Jun-Hee Cha, Dr. theol.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

Hansei University

This paper analyzes the meaning of biblical Shalom from the central text of Micah 4:1-5 which includes a key of biblical peace. The expression “Every man will sit under his own vine and under his own fig tree” describes peaceful circumstances in the Old Testament. The other three verses (1 Kgs 4:25; 2 Kgs 18:31; Zech 3:10) in the Old Testament that include the expression, are differentiated from what Micah shows as the peace of God. First Kings 4:25 describes peace of Solomon, Second Kings 18:31 peace of Assyria, and Zechariah 3:10 peace of Israel.

“Pax Salomonica” was dependent upon heavy payments, tributes caused by suppression and military force. Pax Salomonica is not the true peace which God acknowledges. It is the false peace that excludes self-sacrifice, and it is established on the sacrifice of other people.

www.kci.go.kr

“Pax Assyrica” is a guaranteed peace from the political submission of Judah. This is not what God wants either. The peace from unilateral submission or humiliation is not the true peace. Even “peace of Israel” which is allowed only to the people of Judah, is limited. The peace that a particular ethnic identity or group can enjoy is not the true peace but the selfish peace or the limited peace.

The peace that Micah talks about is the peace not by force and threat but by mediation and compromise. Moreover, this is the peace for all nations, but not for a particular people. True peace is the life under the vine and the fig tree that nobody worries about food, the life that there is no need to fear anyone, and the life that everyone enjoys together.

The biblical Shalom of Micah 4:1-5, therefore, is (1) a fruit of mediation and compromise through mutual communications, (2) the world without wars, (3) economic justice that nobody worries about food, (4) social justice that the weak do not fear the strong, and (5) public justice that everyone shares together.

Keywords

false peace and true peace

Pax Salomonica

Pax Assyrica

peace of Israel

peace of Micah

Pax Romana

Pax Japonica

- 투고일: 2018년 10월 15일
- 심사일: 2018년 10월 16일
- 게재 확정일: 2018년 11월 10일

[www.kci.go.kr](http://www.kci.go.kr)